

깨달음이란 바른 인식을 통해 실현된다

불교인식론

S.R Bhatt · Anu Mehrotra 지음

권서영 · 원철 · 유리 옮김 | 예문서원 펴냄 | 2만2천원



“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 즉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인식론이다. 책은 논리와 지식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즉 인식론 중에서 불교인식론을 다룬 것으로 불교인식론의 체계를 정립하고 집대성한 인도의 인문학자 S.R Bhatt가 지은 영역본(Buddhist Epistemology)의 번역서인 책은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확립된 불교인식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분석서다.

인도의 철학자 S.R Bhatt가 지은 영역본(Buddhist Epistemology)의 번역서인 책은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확립된 불교인식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분석서다.

인식론의 근간인 논리와 지식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처음부터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처님 당시부터 바른 지식은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기초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디그나가와 그의 제자 다르마키르티는 넓게는 중기 인도철학 전체에, 좁게는 인식론과 논리의 발전에 강력한 추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초기의 인식론 사상가들이었고 철학사상에 대한 이들의 공헌은 독특하고도 뚜렷한 것이었다. 이 둘은 인도철학에서 빛나는 별이었다. 따라서 다르마키르티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는 디그나가의 공헌을 연구, 분석 그리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책은 형이상학과 가치론을 배경으로 하는 인식론 영역에서의 이들의 철학적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디그나가·다르마키르티 전통에서 마이트레야, 아상가, 바수반두와 같은 선배 사상가들은 인식론을 불교적 방식으로 구성하려는 시도에 선구적으로 착수했다. 마이트레

야는 실재와 앎의 방식의 본질을 자세하게 논의했다. 그는 불교학파들에서 논쟁술의 개조자이다. 이어 아상가는 대체로 마이트레야를 따랐지만 논증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바수반두는 이 기획을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켰다. 하지만 불교인식론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 사람은 바로 디그나가였다.

그는 논리의 형식적 체계와 특이한 언어 이론을 제출함으로써 인도 인식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이론들 사이사이에 존재론적 문제들을 위치시켰고, 후에 존재론적 요건들을 견지하면서 구성되어 함을 지직한 것이 바로 디그나가의 혁신적인 점이었다.

다르마키르티는 경량부, 유식 전통을 절충한 측면을 가

디그나가·다르마키르티 인식론 분석

주관·유식 중심 국내 불교인식론 탐피 기회

진 불교 사상가이다. 그는 아상가, 바수반두, 그리고 디그나가의 이론을 섭렵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프라마나바르타》에서 부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른 주장들과 함께 ‘일체지(一切智)’라는 불교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지식과 본성, 기준, 그리고 수단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며, 찰나성과 흐름의 이론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불교의 근본적인 ‘연기’ 개념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사상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탈의 본성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며, 유식학파의 중심 주제인 ‘유식’ 이론의 논리적 토대를 제시하며, 업, 윤회 그리고 재생의 이론을 불교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이란 바른 인식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바른 인식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인식론의 목적이랄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른

인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각’이며, 또 하나는 ‘추리’이다. 지각은 언어나 분별적 사고의 매개 없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며, 추리는 언어나 분별적 사고의 매개를 통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때의 지각 대상을 자상(自相)이라고 하고, 추리 대상을 공상(共相)이라 한다. 추리에는 자기를 위한 추리와 타인을 위한 추리가 있다. 전자는 논증인을 통해서 논증대상을 자신이 인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면, 타인을 위한 추리는 논증인을 통해서 인식한 논증대상을 언어를 매개로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본질로 한다.

지각, 추리, 자상, 공상 등은 불교인식론의 중요한 개념들인데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불교인식론을 공부한다면 한결 쉬울 것이라고 책은 말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서론과 본론 3장 그리고 부록 1과 2로 구성되었다. 1장은 불교지식론, 2장은 불교지각론, 3장은 불교추리론이며 부록1은 디그나가의 논리학 개론서인 《니야야프라베사》의 산스크리트어 원문이며, 부록 2는 부록 1의 영어 번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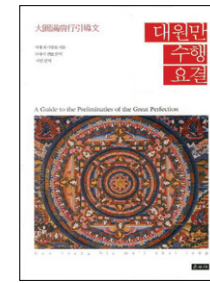
《프라마나삼우차야》를 지은 디그나가는 논리의 형식적 체계와 특이한 언어 이론을 제출하여 불교인식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확립한 선구적인 사상가이고, 다르마키르티는 나가르주나의 공(空) 사상뿐만 아니라 바수반두의 찰나멸 이론, 디그나가의 인식논리와 언어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불교인식논리학의 사유체계를 완성한 독보적인 존재다. 현재 국내 불교 연구 경향을 보면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불교인식론에 대한 연구는 적은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제까지 불교인식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한 독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쉽게 다가가는 한편, 불교 연구의 학문적 과제를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마음의 평안... ‘수행’이 답

대원만 수행 요결

직매최기왕봉 지음 | 수다지 칸뽀 한역 | 지엄 편역 | 운주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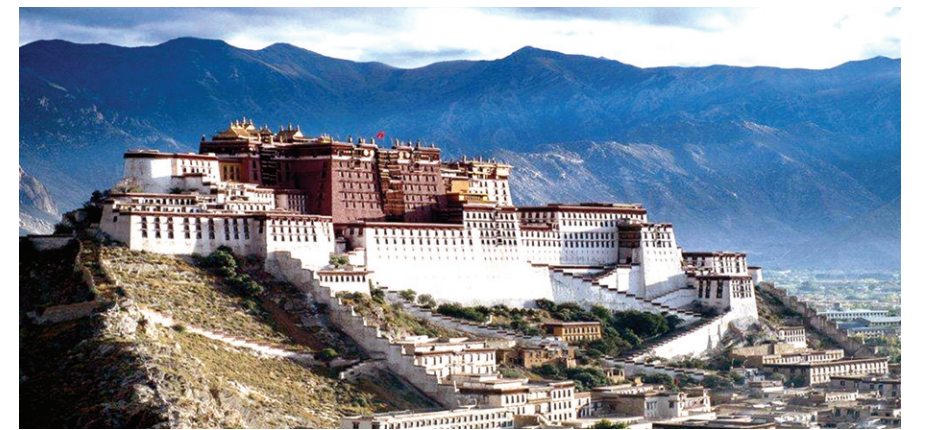
어떻게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인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후로 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누리면서도 늘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류는 번뇌와 고민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퇴적된 문명의 높이와 깊이만큼 정신적 평안은 더욱 얻기 힘든 과정에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이에 티벳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수행만이 번뇌의 불을 끄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티벳의 대표적 수행법의 하나인

연하게 정리한 논서다. 저자인 직매 최기왕봉(པཌལ་ལྷོ་འཇམ་མགས་པོ་ 1808~1889)는 근대에 가장 유명한 님마빠 전승조사이자 대성취자 중 한 명으로, 근본 스승인 직매 겔와 뉴규로부터 책에 수록된 대원만 예비수행법을 25차례나 배웠으며, 무문관 수행을 통해 실상의 대원만 경계를 체득했다.

책은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법을 듣는 방식’을 발심과 행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발심은 법을 듣고 뒤는 모든 순간에 항상 견지해야 하는 보리심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행위는 끊어야 할 행위와 취해야 할 행위로 나누어 과실과 허물을 끊고, 육바라밀 등을 힘써 닦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공통의 의지 예비수행’을 인생난독, 수명무상, 윤회계의 고통, 인과불변, 해탈의의, 스승을 의지함이라는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3장 ‘공통되지 않은 내적 예비수행’은 성도의 기초가 되는 ‘귀의’와 대승으로 들어가는 ‘보리심’, 악업의 장애를 정



티베트 라싸에 있는 포탈라궁

“대원만(족행) 수행”의 예비수행 지침서다. 수행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바로 깨칠 수 있는 마음의 요결서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책이다.

티벳의 고승들은 종파를 초월하여(대원만 수행 요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법은 불법에 정통하고 ‘발심’에 없이는 안 되는 법이며, 티벳불교가 중요시하는 점차적 수행인 ‘보리도차제법’이기 때문이다.

“대원만”이라고 번역한 ‘족행’은 대구경(大空境) 또는 궁극적 경지라는 의미로, 티벳불교를 최초로 정초한 빠드마삼바와(구루 린보체) 이래로 님마빠(현존하는 티벳불교의 4대종파 중 하나, 티벳불교의 전전기 불교를 말한다.)에서는 물론, 타종파에서도 최고급 명상법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대원만 수행의 방법에는 예비수행과 본수행이 있는데, 책은 대원만 수행의 예비수행에 대해 님마빠의 전승조사인 직매 최기왕봉이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일목요

요결 하는 ‘금강살타 염승수행’, 순연(順緣)의 자량(資糧)을 쌓는 만다라 공양과 단박에 내 가지 마(魔)를 끊어버리는 ‘자랑 쌓기와 단박수행’,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의 지혜를 일으키는 구경의 방편인 ‘상사유가(구루요가)’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특별한 수행법인 ‘왕생법(포와법)’을 세 가지 생각을 갖춘 왕생, 왕생 수행법, 왕생의 계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의 결론은 지금까지 실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계승을 통해 모든 중생이 이 수승한(대원만 수행 요결)에 의지하여 해탈의 인(因)을 심기를 발원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대원만 수행 요결》은 티벳불교 수행 전체를 구체적이고도 자상하게 다루고 있는 수행의 총 요결서라 하겠다. 따라서 티벳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번뇌를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책이라 하겠다. 박재완 기자

불교 경전의 백미 법화경을 쉽게

가려뽑은 법화경 명구

탄경 세운 지음 | 미들하우스 펴냄 | 1천8백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큰 비구 대중 1만2천 인과 함께 계셨으니,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어서 이미 모든 새는 것(漏)이 다하여 다시 번뇌가 없고 스스로의 이익됨을 얻어 모든 맺힌 것(結)을 없애고 마음이 자재함을 얻었다.” 법화경 서품 중에서도.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전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경전을 읽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 한 일이 아니다. 《법구경》이나 《현우경》처럼 경전에 따라 전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시구거나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가벼운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도 있지만, 《아함경》이나 《반야경》 등 좀 더 교학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전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 담겨진 사상만큼이나 등장하는 용어에서부터 인명과 지명, 고대 인도의 신화나 비유담 등 일정 정도의 기초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들이 대부분이다. 책은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대표적인 문구들을 가려 뽑고 해설을

덧붙여 경전의 주요 가르침을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법화경은 예로부터 《화엄경》, 《열반경》과 함께 대승불교가 가장 수승한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경전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법화경》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일대사언어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석가모니부처님은 아득한 옛날부터 성불해 있었고 쿠시나가라에서 발원반을 보으신 것은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이었다는 구원실성(久遠實成)의 가르침을 펴고 있다.

《법화경》은 고대 인도인들의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일대사사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눈에는 장대하고 찬란하게 서술하려 한 의도가 지나쳐 일견 황망하기도 하고 반복이 많아 지루하기도 하다.

책은 법화경 사상의 핵심이 되는 대목들을 발췌하여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전하면서, 거기에 해설을 베풀어 법화경 전반의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장인 ‘법화경을 읽기 위하여’에서는 불교 중흥기 사상적 배경에서부터 생애, 초기불교의 가르침, 대승불교의 등장, 법화경의 성립과정과 주요 사상들을 개설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법화경을 읽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간략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좀 편안하게 경전을 시작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3 ~ 3/1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기문화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인	생원책
4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웅화
5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김영사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7	받아들임	티라 브랙	불광출판사
8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사
9	진장불회	유철주	담양북스
10	중국불교의 거사들	김진두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천하의 모든 성패(成敗), 이 원리에 따라 갈린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법칙-

여기 그간의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 연구의 결론으로, 전체를 10개 영역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 성공법칙들을 제시한다.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자 위력적인 전략들은, 때로 패부를 쥘리는 아름이 이 일침들은 당신을 강한 전사(戰士)로, 지혜로운 화사(策士)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마침내 뜻한 바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한국인재경영연구회 편 / 신국판 / 전10권 / 총3,600여쪽 / 할인보급가 99,000원(정가 138,000원)

▶ 인간관계 : 반대자는 곧 협력자 외
▶ 자기개발 : 완벽주의자는 위험하다 외
▶ 대화의 기술 : '알았다'는 말의 의미 외
▶ 기획력 : 기회를 만드는 감정외
▶ 리더십 : 리더십과 통솔력의 차이 외

▶ 창조력 : 아이디어맨들이 갖는 공통점 외
▶ 행동력 : 문제는 없지만 세 가지 밖에 없다 외
▶ 관리력 : 어떻게 무엇을 꾸짖을 것인가 외
▶ 인간의 매력 : 가장 큰 약점, 허영 외
▶ 시시성공 : 장사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않을 때 외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본 시리즈는 직장인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습도서로 선정되어 독서진흥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사람에 대한 명징한 이해 그리고 사람 간에 작동되는 상호 매커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부터 허를 찌르는 기발한 역발상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즐김 몰라 놓쳤던 것에 대한 이론 자극과 함께 섬광처럼 번뜩이는 힌트를 만나게 된다.” -전현철(누리기획 대표)-

대부분의 병(病), 의외로 치료가 쉽습니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천연의약요법전서-

어쩌면 알고 지나쳤을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것이로온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감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응용법 등 전통의약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과 임상으로 얻은 양질의 천연약물을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토록 한 명실공한 자기진단치료 시대를 개막시킬 기념비적 위업!

권형세 저 / 전3권 / 4x6배판 / 양장본 / 3,600쪽 / 할인보급가 24만원(정가 40만원) / 신국판 및 현금 분할도 가능

▶ 1권 약초 편: 1천 종류 약초를 총괄 도해화, 폭넓은 이해를 돕는 분초학도감으로 꾸밈.
▶ 2권 처방 편: 1천여 각 질병의 원인 증상 설명과 함께 전통민간요법 사상 최고의 처방(22,600여 단방)을 약재별로 제시, 딱해 쓰도록 함.
▶ 3권 조제 편: 당대의 명(名醫)을 위시, 민가·사찰 등에 전수 발전되어온 각종 주침(약술·탈진·약차·식이 요법 등 2,600여 응용치유법 명라.

◆ 자연과 전통에서 찾아낸 최고도 가장 완전한 처방전 ◆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토종약초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 -한국약사신문-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길 원한다면 익생양술은 증명하고 있다” -권해세(저자)-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엄혹한 필연을 어찌할 건가.

업(業)

나(我), 결과이자 반드시 원인. 그 섭리 인과(因果)윤회 이야기!

1. 전생업의 비밀 2. 사후세계의 비밀 3. 심령치료의 기적 4. 내가 본 저승세계 5. 명계에서 본 판지 6. 영혼의 목소리 7. 전생이야기 8. 범의령이야기 9. 살아있는 조상령들 10. 명계에서 본 판지

지자경 외 저 / 전9권 / 신국판 / 총 3,000여쪽 / 할인보급가 97,000원(정가 121,500원)

가장 해박했던 정신이 담은 불교적 사유(思惟)와 성찰의 정점!

불교명저

1. 불교란 무엇인가 2. 선이란 무엇인가 3. 부처는 누구인가 4. 관음이란 누구인가 5. 반야심경은 살아있다 6. 선방아화 7. 윤회전생 8. 반야의 문 9.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10.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

일명 서경보 저 / 전10권 / 신국판 / 총 4,500쪽 / 할인보급가 175,000원(정가 250,000원)

불(佛)의 세계

생생히 묘사된 업(業)에 호자는 전율을 느끼며 빠져들 각성을 하게 될 것!

그림(佛圖)을 통한 강렬하고 즉발적인 깨우침을 겨냥한 기획! 사바의 미용을 깨우는 불가 교리를 대중 친화적으로 도해(圖解)해낸 역저!!

1. 제불(諸佛·권공 80) 편 / 2. 지도 편 / 3. 명경(名經) 편 / 4. 법화(法華) 편 / 5. 아미타(阿彌陀) 편 / 6. 대승(大乘) 편 / 7. 윤회(輪廻) 편 / 8. 불교(佛敎) 편 / 9. 불교(佛敎) 편 / 10. 불교(佛敎) 편

손기화 외 편 / 전3권 / 국배판 / 양장본 / 윌리엄 / 할인보급가 22만원(정가 65만원)

추사명필집(秋史名筆集)

“투박한 듯 날렵 경쾌하며 섬세 치밀한 듯 질풍노도인 추사의 그 도저한 경지를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는가”

한국학자도원 편 / 전2권 / 대형판 / 양장본 / 할인보급가 13만원(정가 70만원)